

버마의 중국 호명 방식 “따웃”에 대한 고찰과 유라시아적 해석에 관하여:
글로벌 트렌드와의 일치 가능성
Examining the Burmese Term ‘Takyoke’
and Its Connection to ‘China’ from a Eurasian Perspective

정호재

미얀마(버마)에서 중국을 부르는 호칭은 전 세계적 관점에서 보아도 매우 특수합니다. '따웃' 또는 '때웃'이라는 용어를 보통 중국대륙을 지칭하는 데 널리 쓰고 있습니다. 이 명칭은 미얀마에서 천년 가까이 사용되어 왔으며 대륙의 중국 왕조를 지칭하는 용어로 인정받지만, 동시에 고립적이며 중국 대륙과 아주 특수한 관계를 가진 버마 정치체제의 특수성을 나타내는 좋은 예시가 되기도 합니다. 동아시아의 가장 오래된 문명인 ‘중국’을 지칭하는 호칭은 전 세계적으로 다종다양하지만, 따웃이라는 국호는 아시아적인 관점에서 보아도 전례가 없는 특이한 이름인 데는 이견이 없기 때문입니다.

역사문서 기록이 극히 희귀한 미얀마에서 이 어원을 정확하게 추적하는 것은 현재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 명칭과 기원과 어원은 여전히 논쟁과 추측의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학자들은 이 용어를 발음으로 유추해 중국 남부의 광둥어를 사용하는 지역을 지칭하는 중국어 '다웨(大輿)'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13세기 몽골군이 버마를 침입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전쟁에 참여한 투르크계열의 군대 혹은 나라와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투르크를 부르는 버마어인 '다룩(Drug)'과의 연계성 가설입니다. 여러 가설이 분분함에도 '따웃'이라는 용어는 미얀마와 중국 간의 긴밀한 역사적, 문화적 관계를 반영하는 미얀마의 문화 및 언어 유산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과의 관계성 속에서 지역(버마)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 주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추측도 있습니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원적 고찰도 중요하지만 유라시아적 관점에서의 ‘중국 호칭’과의 연관성 아래서 분석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고, 한 가지 가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중국을 지칭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역사적으로 세 가지 뚜렷한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서구 세계에서는 '친Chin/차이나'라고 부르는 데 익숙해졌고, 중앙아시아와 슬라브에서는 북방 유목국가를 지칭하는 '카타이Kithay/키타인', 동아시아 한자(漢字) 커뮤니티에서는 “중국(中國)”으로 표기하는 것이 선호됩니다. 만일 미얀마도 이러한 경향성의 하나에 포함이 된다면 ‘따웃’이라는 어휘도 이러한 세계적 흐름 속에서 해석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미얀마의 ‘따웃’(또는 때웃)이라는 용어에 초점을 맞추고, 그 기원에 대한 그 합리적인 기원 해석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버마어로 중국을 가리키는 용어는 특정 시기의 중국의 공식 명칭이었으며, 특히 유라시아의 유목 민족인 거란의 왕조 중 하나인 요나라(916~1125년) 연관성을 제시합니다. 요나라는 거란족, 영문으로는 키타인Kithan족이 세운 나라로 약칭은 요(遼)나라이지만, 공식 명칭은 거란(契丹)이었으며, 947년 공식 국호를 대요(大遼)국으로 바꾸고 이를 상당기간 유지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고려실록에도 ‘대요국’이라는 명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마는 특히 10세기 이후 버마족이 세운 바간 왕조(1044~1287)가 나라의 기틀을 세우고 찬란한 불교 문명을 꽃피우던 시기였습니다.

때웃의 어원을 ‘대요국’로 설정하면 이전에 나타난 세 가지 경향에 속하는 보편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버마어 용어는 다층적인 해석에 대한 함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중국과 미얀마는 다른 아시아 지역과 비슷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따웃'이라는 국호의 도입이 버마 국가의 정확한 형성 시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버마어 어휘가 인도 문화와 같은 빠리어와 산스크리트어와 같은 인도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는 중국 어휘도 일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해석을 제시합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키타인족이 만든 ‘대요국’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하는 가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정호재는 싱가포르 국립대 비교아시아학 박사. 동남아시아 전공. 학부와 석사는 경영학을 전공했고, 그 뒤 기자생활을 거치며 지역학으로 바꾸어 2023년 박사학위를 끝마쳤음. 동남아와 동북아의 교류 및 체제 비교에 관심 있음.

Date & Time: June 4th, 2024. 12:00-13:00

Place: SNUAC Asia Square (3rd Floor)